

金文學 著書 書評 考察*

오제중**

<目 次>

1. 緒論
2. 金文學 著書의 종류와 내용
3. 宋代와 清代 金文學 著書의 書評
4. 金文學 著書 書評의 實例
5. 結論

1. 緒論

金文學¹⁾ 연구에 있어서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따라서 金文學을 연구할 때 청동기를 실물로 직접 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時空間 등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기회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차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확한 청동기 銘文을 拓本이나 摹本 등으로 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적으로 소장되어 있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직접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역대 金文學 연구자들이 청동기의 實物形象과 銘文 등을 모아서 엮은 각종 著書는 金文學 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연구 자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著書를 살피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평가하고 분석하

* 이 논문은 2015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청동기를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학문 영역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전통 金石學 또는 현재의 靑銅器學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에는 銘刻學(Epigraphy)과 考古學(Archaeology)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다.

는 것은 직접적인 청동기 실물 연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金文學 저서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수준 높은 학문적 慧眼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의 金文學 연구는 漢代에 일부 청동기 관련 기록이 발견되나 본격적인 연구는 宋代에 시작되었고 이후 清代에 이르러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게 된다. 특히 청대에는 전통적으로 書信의 왕래를 통해 학문적 의견을 교류하는 학풍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자료는 금문학 저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학문적 평가 자료는 대부분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것으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청대 말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우수한 금문학 저서가 간행된 이래 民國 시기 대표적인 金文學 연구자인 容庚 등에 의해서 金文學 著書의 분류와 이에 관한 書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宋代와 清代 본격적인 청동기 연구가 이루어진 이래 직접적인 金文 저서 내용의 분석 이외에 이에 대한 서평 등과 같은 평가 기록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진하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학술적 내용은 우리에게 금문 저서를 바라보는 수준 높은 안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문학 저서 書評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民國 시기 容庚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容庚의 역대 宋代와 清代를 중심으로 한 金文學 저서에 대한 書評을 중심으로 학술적 가치와 그 의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金文學에서 書評의 정확한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金文學 著書의 종류와 내용

1) 金文學 著書의 종류

書評(book review)의 사전적 의미는 책의 내용에 대한 평으로 현재 여러 학문

분야 영역에서 이미 일정한 학술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書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金文學 著書가 먼저 출간된 뒤에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평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金文學 著書의 종류와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 금문학 목록서인 『金石書錄目』²⁾에는 「以器物為主, 以體例為緯」라는 器物과 體例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器物의 종류를 總類, 金類, 錢幣類, 璽印類, 石類, 玉類, 甲骨類, 匋類, 竹木類, 地志類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다시 目錄, 圖象, 文字, 通考, 題跋, 字書, 雜著, 傳記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金石書錄目』의 항목은 연구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通考는 通考類와 考釋類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金文學 관련 通論 성격으로 종합적인 금문학 학술 내용을 포괄하며 후자는 주로 청동기 銘文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 밖에 고문헌에서 주로 발견되는 題跋은 雜著 등과 함께 其他類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書評類는 民國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金文 관련 영역으로 이를 위해서는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書評類은 때로는 전문적인 金文 著書 못지않은 학술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금문학 저서를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圖象類, 文字類, 通考類, 字書類, 目錄類, 考釋類, 書評類, 其他類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근대적 개념의 금문학 저서 분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書評類의 신설이다.

2) 金文學 著書의 내용

이상과 같은 역대 다양한 金文學 관련 저서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圖象類와 文字類이다.³⁾ 그리고 書評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바로 이들 두 종류의 著書이다. 容庚은 자신의 金文學 著書를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하여 언급하였다. 「살펴본 청동기의 銘文이 오천 종이 넘으니 그 器物을 모아 『寶蘊

2) 容媛輯·容庚校,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初版, 1930年.

3) 「而著錄之書, 其要者可分二類, 一圖象, 一文字. 圖象者多屬自藏, 文字者多屬彙集.」(금문 저서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상류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류이다. 도상류는 다수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기물이며 문자류는 다수가 이들 명문을 모은 것이다.), 容庚, 『商周彝器通考』, 258쪽.

樓』과 『武英殿』 등의 圖錄을 편찬하고, 銘文을 모아 『秦漢金文錄』을 편찬했으며, 字形을 모아 『金文編』을 편찬했으니 천하에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⁴⁾ 여기서 언급한 器, 銘, 字는 바로 器物, 銘文, 文字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로 圖象類, 文字類, 字書類 저서의 특징을 한 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器物의 외형과 무늬 등 형상을 위주로 모은 것이 圖象類이고 이러한 器物에 적혀있는 銘文을 모은 것이 文字類이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銘文의 자형을 마치 『說文解字』와 같이 전문적으로 수록한 字書類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字書類는 宋代에는 찾아보기 힘들며 또한 청대 이후의 字書 역시 주요한 書評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金文 서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圖象類와 文字類로 제한해도 무방하다. 한편 주의할 사항은 일부 圖象類는 器物 이외에도 청동기의 銘文이 함께 수록되거나 또는 文字類 저서에 銘文이외에 器物의 형상이 함께 수록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圖象類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金文 저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전통적으로 拓本과 摹本 등의 수록 방식을 취하며 각 청동기 아래 器物의 명칭, 크기, 출처 등의 상관 정보를 함께 기재한다. 다음으로 文字類는 청동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銘文을 摹拓한 후에 이를 해석한 釋文을 첨가한다. 이들 圖象類와 文字類 저서가 바로 金文學 書評의 주요 대상이다.

3. 宋代와 清代 金文學 著書의 書評

앞서 인용한 『金石書錄目』에 따르면 현존 金石學 저서 중 北宋에서 청대 乾隆 시기 이전의 것은 宋代 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22종을 포함해 67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乾隆 이후 약 200년 사이 906종으로 그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들 金文學 著書 중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書評을 살펴

4) 「所見彝器款識逾五千種, 集其器以為『寶蘊樓』·『武英殿』諸圖錄, 集其銘以為『秦漢金文錄』, 集其字以為『金文編』, 意天下可樂之事未有過乎此也。」, 容庚, 『甲骨文編·序』, 曾憲通編選, 『容庚選集』, 387쪽.

보기로 한다.

1) 宋代 金文學 著書의 書評

먼저 容庚의 「宋代吉金書籍述評」에서는 송대 금문학 저서에 대해 본격적인 서평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동기 시대의 개막과 청동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⁵⁾ 특히 秦漢시기 이후 고대 기물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祥瑞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 즐기고 감상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청동기를 단순한 기호나 수집의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 器物이 이미 연구의 바탕이 되었고 상서로운 감상의 용도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청동기 書評 탄생의 시대 분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문학 書評의 대상은 바로 학자들에 의해 출간된 연구 목적의 저서이기 때문에 청동기를 바라보는 학술적 시각의 변화가 없었다면 서평의 발전 역시 어려웠을 것이다. 秦漢 시기와 唐대를 거친 이후 본격적인 청동기 연구는 宋代 眞宗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博古圖錄』의 완성으로 청동기의 器名 또한 거의 확정되었다.⁶⁾ 한편 宋代의 청동기 銘文을 著錄하는 방법에는 대략 拓本, 刻本, 摹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摹本은 銘文을 직접 손으로 臨摹한 것으로 실물과 동일한 拓本과 달리 원래의 字形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薛尚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과 呂大臨의 『考古圖釋文』이 이러한 예에 속하며 당연히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한 연구 결과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5) 「人類用器之進化, 由石器時代, 而銅器時代, 而鐵器時代. 吾國於殷、周之際, 通行銅器, 其種類之豐富, 鑄冶之精美, 有非後代所能及者. 秦、漢以還, 乃日即苦窳, 而當時遺制, 後世極少流傳, 偶有所獲, 視爲至寶。」(인류 기물 사용의 진화는 석기시대에서 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로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은주 시기 청동기가 통용되었는데 그 종류의 풍부함과 구조의 정교함은 후대 사람들이 미칠 수 없었다. 진한 시대로 들어서 이내 시대가 어지러워 당시 예로부터 전해오는 제도와 기물은 후세에 아주 소량만이 전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연히 이를 얻으면 대단히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容庚, 「宋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47쪽.

6) 容庚, 「宋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48-49쪽.

높아진다. 이와 같은 宋代 금문학 저서들의 得失을 통해 당시 금문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서평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容庚의 「宋代吉金書籍述評」에서는 宋代 간행된 청동기 관련 서적을 대상으로 서평을 하였다. 먼저 現存하는 서적에 대한 서평을 적은 후에 失傳된 저서의 서평을 기록하였다. 현존 저서 8종과 실전 저서 12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現存 저서	失傳 저서
呂大臨『考古圖』	僧湛詮『周秦古器銘碑』
呂大臨『考古圖釋文』	楊元明『皇祐三館古器圖』
趙九成『續考古圖』	劉敞『先秦古器圖』
徽宗敕『博古圖錄』	胡俛『古器圖』
薛尚功『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李公麟『考古圖』
王休『嘯堂集古錄』	李公麟『周鑑圖』
王厚之『鐘鼎款識』	黃伯思『博古圖說』
張掄『紹興內府古器評』	趙明誠『古器物銘碑』
	晏溥『晏氏鼎彝譜』
	『紹興稽古錄』
	王楚『鐘鼎篆韻』
	薛尚功『廣鐘鼎篆韻』

이 중 현존하는 저서에 비해 失傳 저서에 관한 書評은 분량도 적으며 내용 역시 상세하지 않다. 이것은 저서의 실제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비록 현재 전해지지 않으나 이에 대한 書評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金文學 저서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학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宋代 출간된 금문학 著書에 수록된 청동기 중 銘文이 있는 것은 육백여 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전해지는 수량이 이처럼 적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만일 宋代 이와 같은 저서가 출간되지 않았다면 당시 청동기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마저 알지 못하는 더욱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도 충분히 金文 著書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容庚은 이상 각각의 서적에 대해 각종 版本, 著者, 體制, 수록 청동기의 종류 및 해당 서적의 得失 등에 관해 상세한 기록과 서평을

첨가하였다. 이와 같은 청동기에 대한 각종 기록은 書評이 단순한 평가의 목적 이상으로 考古學과 같이 고대 器物에 대한 학술적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청동기에 鑄造되어 있는 문자인 銘文을 종이에 拓本하는 것은 대개 宋代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呂大臨의 『考古圖』는 역대 최초로 청동기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한 著書이다.⁷⁾ 하지만 書名을 비롯한 卷數, 著者 등의 문제에 관해 역대로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 먼저 저자와 관련해서는 王楚, 王黼 등의 설이 존재했으나 근대 이후에 余嘉錫은 王楚를 『博古圖』의 저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王楚의 『博古圖』 二十卷과 현존하는 『博古圖』 三十卷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서적이다. 또한 비록 余嘉錫의 주장이 일정 부분 합리적이어서도 지금의 『博古圖』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⁸⁾ 따라서 현존하는 『博古圖』의 著者, 書名, 卷數 및 수록 청동기의 수량 등과 관련해서는 容庚의 「宋代吉金書籍述評」의 서평이 비교적 가장 정확하다. 그는 여기서 『博古圖』는 初刊本과 重刊本의 두 종류의 판본이 있는데 초간본은 宋徽宗의 勅命으로 편찬되었으며 宣和年間에 內府에서 획득한 것을 다시 수록하여 편찬한 것이 바로 중간본 『宣和重修博古圖錄』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여러 異說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書評에서는 평가자 스스로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오류를 교정하고 학술적 견해를 제시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서평의 학술적 색채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평가자의 적극적 태도의 반영이다.

2) 清代 金文學 著書의 書評

宋代 이후 元代와 明代를 거치며 金文 著錄과 관련한 별다른 편찬이 보이지 않았다. 이후 清代 고종 황제에 이르러 『西清古鑑』 등의 출간으로 청동기 관련

7) 馬承源, 『中國青銅器』, 551쪽.

8) 현존하는 『博古圖』는 帝室에 收藏되어 있는 청동기를 수록한 것으로 王楚의 저서와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모두 여덟 가지의 증거가 있다. 葉國良, 『宋代金石學研究』, 89-90쪽.

저서는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을 시작했다. 容庚의 「清代吉金書籍述評」은 앞서 살펴본 「宋代吉金書籍述評」의 뒤를 이어 완성된 것으로 전체적인 형식은 대체로 동일하다. 容庚이 이처럼 다양한 저서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대량의 金文學 관련 서적을 직접 접하면서 목록을 편찬하고 또한 각 저서의 序跋文을 鈔錄하면서 간단한 評語를 첨가한 것이 주된 계기가 되었다.⁹⁾ 이들 문장의 편찬 의도는 역대 간행된 金文 저서의 功過를 논하는 것으로 과거의 오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동기의 形制와 文字 그리고 花紋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여겼다.¹⁰⁾ 여기서 形制란 청동기의 크기와 종류 등 외형과 관련된 것으로 圖象類 저서가 바로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것이다. 다음으로 文字는 청동기의 銘文을 지적한 것으로 역시 文字類 저서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청동기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문양인 花紋은 단순한 美的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청동기의 시대 구분 등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과거의 금문 연구는 銘文의 해석에만 치중하여 花紋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容庚은 그의 書評에서 이러한 花紋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활용하였다.¹¹⁾ 이처럼 花紋을 금문학 연구의 주요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容庚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金文 著書에서 이와 같은 花紋은 청동기의 形制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圖象類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清代吉金書籍述評」에서 제시하고 있는 圖象類와 文字類 각 12종의 저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9) 「一九二二年秋, 我在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得見金石書籍五百餘種, 擬與舍弟肇祖合編金石書錄, 因相約鈔錄各書的序跋, 間或加以簡單的評語。」(1922년 가을, 나는 북경대학 연구소 국학문에서 금석서적 오백여 종을 접할 수 있었다. 동생 肇祖와 함께 금석서적을 편찬하기로 하여 각 서적의 서발문을 초록하기로 약속하면서 간혹 간단한 평어를 첨가하였다.),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00쪽.
- 10) 「形制、文字、花紋三方面的系統研究, 正有待於我們今後的努力. 本文意圖總結前人研究的成績和缺點, 指出將來前進的方向.」,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01쪽.
- 11) 「吾國藏家, 重文字而忽略花紋, 重大器忽略小器, 故此類器中土極少流傳, 考古者他日或將求之外國。」(중국의 소장가들은 문자를 중시하고 화문을 소홀히 하였으며, 큰 기물을 중시하고 작은 기물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류의 기물은 흙 속에 묻혀 극히 일부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에 고고학 연구자들은 후일 이러한 것들을 혹은 외국에서 구해아할 것이다.), 容庚, 「評『猷氏集古錄』第二集」, 1656쪽.

圖象類	文字類
梁詩正等奉敕『西清古鑑』	吳東發『商周文拾遺』
『寧壽鑑古』	阮元『積古齋鐘鼎彝器款識』
王傑等奉敕『西清續鑑甲編』	劉喜海『清愛堂家藏鐘鼎彝器款識法帖』
『西清續鑑乙編』	吳榮光『筠清館金文』
錢坫『十六長樂堂古器款識考』	徐同柏『從古堂款識學』
曹載奎『懷米山房吉金圖』	朱善旂『敬吾心室彝器款識』
劉喜海『長安獲古編』	呂調陽『商周彝器釋銘』
吳雲『兩豐軒彝器圖釋』	吳式芬『攔古錄金文』
潘祖蔭『攀古樓彝器款識』	吳大澂『憲齋集古錄』
吳大澂『恆軒所見所藏吉金錄』	方濬益『綴遺齋彝器款識考釋』
端方『陶齋吉金錄』, 『續錄』	劉心源『古文審』
丁麟年『杉林館吉金圖識』	劉心源『奇觚室吉金文述』

한편 「清代吉金書籍述評」의 마무리 부분에는 청대 금문학 연구의 단점에 대해서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인쇄술의 한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동기의 형상에 관해서는 외형을 그리고, 명문을 적고, 판각을 하고, 인쇄를 하는 네 단계의 수속이 필요하다. 문자에 관해서도 역시 세 단계의 수속이 필요하다. 청 정부의 역량으로 네 종의 서적을 편찬했으나 간행된 것은 한 종에 불과하다. 潘祖蔭이 소장하고 있는 청동기는 사백오십 점에 이르지만 간행된 것은 단지 오십 종에 불과하다. 陳介祺 역시 삼백구십 점의 청동기를 소장하고 위진 유현에 거주하며 鮑康에게 편지를 써서 “책을 판각하는 일은 도시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기술도 없고 도와줄 벗도 없으니 크게 탄식할 뿐이다”라고 말하며 한 권의 책도 완성하지 못했다. 吳大澂은 삼백사십일 점의 청동기를 소장했지만 『恆軒吉金錄』에 단지 칠십일 종만 수록하였고 소장하고 있는 탁본은 천여 종에 달했으나 사후에야 비로소 간행되었다. 方濬益은 대략 이천여 점의 청동기를 편찬하려 했으나 삼십일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했다.¹²⁾

12) 「在圖象方面，需經過繪圖、摹文、刻本、印刷四重手續。在文字方面，也得三重手續。以清政府的力量，編纂了四種，而印行的只得一種。潘祖蔭收藏四百五十器，而印行的祇得五十器。陳介祺收藏三百九十器，以僻居濰縣，給鮑康的信說，“刻書之事，不能不望有力而在都會者，無工無友，惟有浩嘆。”以至一書無成。吳大澂收藏三百四十一器，刻於『恆軒吉金錄』中祇有七十一器。收藏拓本一千餘種，死後纔得印行。方濬益編纂約二千器，中經三十一年之時間尚未完成。」，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1쪽.

이처럼 당시 학자들이 대량의 金文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것을 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위의 書評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潘祖蔭의 古文物에 대한 愛護와 所藏은 정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제자백가를 모두 섭렵하였다. 또한 문물 소장을 애호하여 금석 기물을 대단히 많이 모았으며 한림에 천거된 이에게 하사 하였다.」¹³⁾ 「봉록을 절약하여 고대 기물을 구입하였으며 소장한 것이 육백여 종에 달한다. 이 중 〈孟鼎〉, 〈克鼎〉, 〈齊侯罇〉 등은 천하의 중요한 보물이다.」¹⁴⁾ 潘祖蔭 역시 이러한 고대 문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자신의 저서인 『攀古樓彝器款識』에서 직접 표현하였다.¹⁵⁾ 다만 안타까운 것은 후에 이러한 器物의 상당수가 유실되었으며 특히 그가 소장하였던 청동기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남겨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陳介祺 역시 청동기 소장에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청동기 중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毛公鼎〉 또한 그의 대표적인 소장품이었다.¹⁶⁾ 그 외 吳大澂 역시 청동기 수집과 관련하여 여러 기록이 남아있다.¹⁷⁾ 그리고 方濬益 또한 商周시기와 兩漢의 청동기 백 수십 종을 소장하였으며 청대 嘉慶과 道光 황제 이래 국내 청동기 소장자들의 拓本 천연 통

-
- 13) 「幼好學，涉獵百家。好收藏，儲金石甚富，以賜舉人翰林。」，費行簡，『近代名人小傳』，432쪽. 『清代傳記叢刊』，第202冊.
- 14) 「節俸入購古器，藏六百餘器，孟鼎，克鼎，齊侯罇爲宇內重寶。」，松丸道雄，『新編金石學錄』，161쪽.
- 15) 「夫其可貴也，如彼，其難遇而易毀也，又如此，然則嗜之，癖之，愛護之，翹之，於兼金拱璧之上，誠非過矣。」(그것의 귀함이 그와 같으며 만나기는 어려우나 훼손되기는 쉬운 것은 또한 이와 같다. 따라서 즐기고, 습관이 생기고, 좋아하고, 뛰어난 것이 황금이나 주옥보다 더 훌륭한 것이 실로 지나친 것이 아니다.)，潘祖蔭，『攀古樓彝器款識』序文.
- 16) 「素嗜金石之學，收藏甲海內，築簠齋以珍弄之，凡彝器至數百件，尤著者爲毛公鼎，文幾七百餘字，推天下金器之冠。」(평소 금석의 학문을 좋아하여 이에 관한 소장이 나라 안에 으뜸이었다. 簠齋를 건축하여 그곳에 진귀한 기물을 감추니 청동기가 수백 건에 달했다. 특히 저명한 것은 〈모공정〉으로 명문이 거의 칠백여 자에 달해 천하 청동기의 으뜸으로 받아들여졌다.)，支偉成，『清代樸學大師列傳』，277쪽.
- 17) 「起家翰林，博通訓詁辭章，尤嗜金石。有所見，輒手摹之，或圖其形，存篋笥，積久得百數十器，編『恆軒吉金錄』若干卷。」(한림에 천거되어 문장의 뜻에 널리 통달하게 되었다. 특히 금석을 좋아하여 자주 손으로 따라 적거나 그 형체를 따라 그렸다. 이러한 것을 상자에 쌓아 보존한 것이 수백 점에 달해 『恆軒吉金錄』 약간 권을 편찬하였다.)，支偉成，『清代樸學大師列傳』，279쪽.

을 수집하여 이들의 銘文을 해석하였다.¹⁸⁾ 이상과 같은 清代 후기 학자들의 고대 文物과 拓本에 대한 수집은 당시 학자들 사이의 일종의 학풍 또는 학술 교류와 같은 일종의 사회현상 이었다. 다음으로는 圖形文字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도형문자와 관련해서는 송대 이래로 명문을 보고 잘못된 뜻으로 풀이하여 의미가 통하는 바를 살펴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博古圖錄』에서는 〈商子鼎〉에 보이는 명문 子를 풀이하여 “일설에는 상대의 子씨 성으로 따라서 상대의 청동기에는 子의 명문이 많다. 다른 일설에는 명문 중의 子는 전해지는 자자손손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商蠶鼎〉 명문의 전갈 형상을 풀이하여 “희주 이전에는 명문이 간결하고 고고하여 〈魚鼎〉, 〈饗養鼎〉은 모두 상대의 청동기이다. 모두 사물을 취하여 문자로 삼으니 지금의 전갈 명문 역시 그러하다. 전갈은 비록 미물이나 쉽게 사람을 독으로 공격하니 군자 또한 어려움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청동기에 적은 것은 마땅한 것이다. 또한 蠶는 인명이 되기도 하여 주공왕 십삼 년 정현공 채의 즉위나 공송채가 이와 같은 것이다. 즉 청동기의 이와 같은 명문은 거의 상대 사람의 이름인 것이다.”…… 나머지는 대개 이와 같으며 청대에 이르도록 여전히 진일보한 해석을 하지 못했다.¹⁹⁾

청동기 銘文에서 종종 발견되는 圖形文字는 그림에 가까운 문자의 형식으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해석상의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다. 다음으로는 名物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주대는 지금으로부터 이천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주대 이전의 기물과 제도가 지금까지 보존되기 어려우며 대량으로 서적에 기재되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지금의 사람들이 고대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春秋二十國年表』의 이십 개의 제후국과 관련한 대다수의

18) 楊樹達, 『積微居小學述林』, 276쪽.

19) 「圖形文字, 自宋代以來, 類皆望文生訓, 不觀其會通。如『博古圖錄』商子鼎銘一子字, 解釋云“一說商子姓, 故凡商之彝器其以子銘之者爲多。一說銘之子者, 以傳子子孫孫之義。”商蠶鼎銘一蠶形, 解釋云“姬周而上, 銘識簡古, 如魚鼎、饗養鼎皆商器也, 悉取物以爲篆, 今蠶亦如之。蠶雖微物而善毒人, 亦君子之所思患而豫防之, 故其銘之鼎宜焉。又蠶疑爲人名, 若周恭王十三年, 鄭獻公蠶立, 又如公孫蠶之類, 則鼎之識殆亦商人之名也。”……其它大概如此。清代仍未能有更進一步的解釋。」, 容庚, 『清代古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41-142쪽.

청동기가 출토되었으며 이십국 이외의 소국들 역시 함께 발견되었다. ……
금문의 인명과 지명 중 다수가 경전과 사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
하는 고유한 명칭이 많은 것이다.²⁰⁾

清代 말기 학자들의 청동기 銘文에 근거한 춘추전국 시대 제후 國名에 관한 연
구 성과를 예로 들면 周왕조의 周나라는 宋代 이래로 대부분 鹵, 또는 魯로 해석
했으나 吳大澂이 처음으로 周로 해석했으며 薛國의 薛 역시 〈薛侯鼎〉, 〈薛侯盤〉,
〈薛侯匜〉 등의 청동기에 근거하여 方濬益이 처음으로 薛로 해석하였다. 蔡國 역
시 魏三字石經이 새롭게 출토됨에 따라 蔡로 풀이될 수 있었다. 이처럼 청동기
출토에 따른 金文學 성과에 의해 대부분의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의 지명 또는
국명이 해결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腐蝕으로 인한 한계에 관한 것이다.

고대 청동기는 이천년 이전에 제조되어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 부식되
어 종종 명문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풀이를 하면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薛尙功의 『款識』에 수록된 〈穆公鼎〉
을 1942년 기산에서 출토된 동일한 명문의 청동기와 대조해 보면 첫 글자
인 成은 실제로는 禹자이다. 전체 명문 206자 가운데 오탃자가 절반이 넘
으니 해석에서 옳은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²¹⁾

여기서는 宋代 薛尙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에 수록된 청동기의 예를 들
어 銘文의 훼손이 심한 경우 쉽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書評 내용을 통해 清代 金文 연구의 현황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容庚은 이와 동시에 모든 청대 金文學 서적에 대한 書評을 총괄하여
앞서 언급한 청대 청동기 연구의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과 향후 청동기 연구의

20) 「周代與現在距離在二千年以上。周代以前的器物、制度很難保存至今，也很難大量計載在書本之上，故今人不盡能瞭解古人的情況乃勢所必然。據『春秋二十國年表』的二十國，大多數有銅器出土，並且有在二十國以外的小國。……金文中的人名、地名，多數不見於經、史，故不認識的專名很多。」，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2쪽.

21) 「古銅器製造在二千多年以前，埋藏土中，久經鏽蝕，以致銘文往往模糊不清。據以考釋，很容易發生錯誤。如薛氏『款識』〈穆公鼎〉，以一九四二年岐山出土同銘的另一鼎校之，頭一成字實乃禹字。全文二百零六字，脫誤過半，考釋那有是處。」，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3쪽.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인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명문을 손으로 그리고 판각하는 것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대 郭沫若은 고대 사회 발전의 상황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도형문자는 고대 부족국가의 명칭으로 소위 토템의 유산이거나 변형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형문자 풀이의 어려움은 대체로 모두 해결되었다. 또한 고대 청동기는 점점 박물관에 모아 보관하게 되어 부식 문제는 화학 약물 처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전국 각지의 과학적 발굴로 기물의 출토가 점차 많아지게 되어 명물, 제도, 시대, 지명에 대한 확정에 이미 일치된 견해를 얻게 되었다. 청대의 청동기 형상과 명문에 대한 고증은 이미 오늘날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인 通考와 通釋의 필요성이 점차 전개되고 제고 되었다. 따라서 선인들의 기초 위에 오늘날의 유리한 조건이 더해져 청동기 연구가 이전 사람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²²⁾

이와 같은 巨視的 분석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宋代와 清代에 간행되었던 수많은 개별 금문학 서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평가와 이를 통한 수준 높은 학술적 안목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書評 속에 담긴 학술적 견해는 후일 종합적인 금문학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4. 金文學 著書 書評의 實例

모든 학문적 성과의 최종 단계는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다. 금문학 성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청동기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의 근

22) 「現在由於印刷技術的進步，不受摹繪雕刻的限制。近人郭沫若瞭解了古代社會發展的情況。謂“此等圖形文字，乃古代國族之名號，蓋所謂圖騰之子遺或轉變也”。圖形文字的困難，大致上可迎刃而解。古銅器漸漸集中收藏於博物館，鏽蝕問題可以借助於化學藥物的處理。各地科學發掘，器物出土漸多，對於名物、制度、時代、地望的考定。好些已取得一致的見解。清代圖象、文字的考證。已不能滿足今日的要求。綜合性的通考、通釋工作是有必要逐步開展，逐步提高的。可以相信在前人的基礎上，又益以今天的有利條件，銅器研究工作可以超越前人，這是毫無疑問的。」，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3쪽.

원을 살피고자 하면 書信의 교류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清代 학자들은 이것을 尺牘이라고 명칭하기도 했으며 특히 청대 후기 金文 학자들의 서신 교류는 더욱 빈번하였다. 陳介祺의 『篋齋尺牘』, 潘祖蔭의 『潘文勤金石手札』, 吳大澂의 『吳憲齋尺牘』 등이 모두 이러한 예에 속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이러한 서신은 일반적인 안부나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술적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당시 학자들이 서신을 교류하는 주요한 목적은 상대방의 학술적 견해를 듣고 이를 학문 연구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서신의 왕래와 동시에 청동기 銘文 拓本の 교류와 증정 등은 당시 대단히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즉 拓本은 金文을 연구하는 일차적인 원시자료이고 서신은 학문을 교류하는 매개 수단이었다. 이처럼 타인의 금문학 저서에 개인적인 註釋을 더하거나 혹은 이에 대해 書信 교환 등을 통해 학술적 견해를 기록한 것 또한 넓은 의미로는 書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宋代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동기 연구는 清代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되었다.²³⁾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清代 圖象類와 文字類 저서를 대상으로 한 書評의 實例를 통해 학술적 가치를 분석한다.

1) 圖象類

(1) 潘祖蔭 『攀古樓彝器款識』

圖象類에 속하는 본 저서는 吳大澂이 器物의 그림을 그리고 銘文을 摹寫했으며 王懿榮은 楷書로 이를 적었다. 또한 張之洞, 周悅讓, 王懿榮, 吳大澂, 胡義贊 그리고 潘祖蔭 자신이 각각의 청동기를 대상으로 考證하였다. 이들의 성취에 관한 서평은 다음과 같다.

주씨의 고증은 내용이 허술하고, 장씨는 아는 것은 많으나 요령이 부족하고, 오씨와 호씨는 모두 내용은 적으나 사실에 꼭 알맞다. 반씨는 “고대 기물의 문자는 억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비교적 삼가고 조심

23) 「鐘鼎彝器之學, 萌芽於漢, 昌於宋, 極盛於國朝。」(금문학은 한대에 시작되어 송대에 번창하였고 청대에 극성하였다.), 潘祖蔭, 『攀古樓彝器款識』序.

하였다. 이들 각자의 해설은 같은 것과 다름이 있으나 내버려두어 후세 사 람들의 논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²⁴⁾

매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 간략하지만 연구의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어지는 서평에서도 「판본의 조각이 대단히 정교하고 한 점의 위조된 청동기도 수록되지 않으니 귀한 선본이라 말할 수 있다」²⁵⁾라고 높게 평하였다. 書評에는 또한 吳大澂이 王懿榮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가 소개되어 있다. 「오늘 潘祖蔭을 위해서 기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몇 장을 보냈다. 오늘 아침 또 찾아와 그림을 찾으니 이처럼 짧은 시간에 어찌 완성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다시 재촉하면 단지 너그러움을 청할 뿐이다」²⁶⁾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완성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서평에 적기도 했다.

그 후 潘祖蔭은 계속해서 오백여 점의 기물을 얻었으니 이 책의 열배가 넘는다. 그러나 당시 吳大澂은 외성에서 관직을 하고 있어서 기물의 그림을 그릴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孟鼎〉, 〈克鼎〉, 〈王孫鐘〉, 〈沈兒鐘〉 등과 같은 중요한 기물은 모두 세상의 희귀한 보물이나 뒤를 이어서 책으로 엮지 못했으니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²⁷⁾

이처럼 본 저서가 완성되기까지 吳大澂이 청동기 圖象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노력을 書評에서 생생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에 관한 기록과 학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書信이 후일 書評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 「以周氏爲空疏, 張氏博而寡要, 吳氏、胡氏均言少而切實, 潘氏說“古器文字不可強識”, 故比較矜慎. 各人所說有同有異, 存之以俟後人論定, 是此書的特點.」,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16쪽.

25) 「雕刻很精, 無一僞器, 可以說是善本.」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16쪽.

26) 「今日爲司農繪圖, 昨晚送去數葉, 今早又來索圖, 此豈頃刻可成, 如再迫促, 祇得告假矣.」,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16쪽.

27) 「其後潘氏陸續收得五百多器, 過於此書十倍. 時吳氏在外省作官, 繪圖無人, 故如〈孟鼎〉、〈克鼎〉、〈王孫鐘〉、〈沈兒鐘〉等重器, 皆希世之寶, 不能續編成書, 未免有遺憾了.」,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16-117쪽.

(2) 吳大澂 『恆軒所見所藏吉金錄』

본 저서에 수록된 기물의 그림은 모두 吳大澂이 그렸으며 銘文 역시 스스로 摹寫하였다. 본 저서의 특징은 수록하고 있는 潘祖蔭 소장 청동기의 圖形과 그의 저서인 『攀古樓彝器款識』에서 수록하고 있는 器物的 圖形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潘祖蔭 소장 청동기이지만 『攀古樓彝器款識』에는 수록되지 않은 청동기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서평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청대 동지 십이삼 년 사이 오씨는 반씨를 위해 『攀古樓彝器款識』의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사십삼 점의 기물을 남겨 판각을 했으니 이 중 〈孟鼎〉, 〈蘇衛妃鼎〉, 〈興鼎〉, 〈白矩敦〉, 〈貝十朋子父乙觶〉 다섯 점은 『攀古樓』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魚父癸壺〉의 무늬가 약간 다른 것과 〈召中鬲〉 입구 안에 명문이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각각의 도형은 『攀古』와 모두 일치 한다.²⁸⁾

이러한 분석이 가능했던 것은 容庚 자신이 서평을 적으면서 『恆軒所見所藏吉金錄』과 『攀古樓彝器款識』 속에 수록된 청동기 圖象을 하나씩 상세히 비교하여 얻은 결과로 서평의 학술적 가치는 물론 청동기의 目錄學的 가치를 모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전통적인 금문학이 銘文의 문자 및 자형에만 치중하여 器物의 수량 및 목록 정리가 비교적 소홀했던 점과 비교하여 이러한 서평의 내용은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書評에는 吳大澂이 王懿榮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되어 있다.

우리들이 직접 본 청동기를 앞으로 한권의 책으로 엮을 때 반드시 상세히 심의하고 정밀하게 엄선하여 학식이 있는 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실물 청동기를 보지 못했으면 판각하지 않고, 그림은 정교하게

28) 「同治十一、二年間，吳氏爲潘祖蔭繪『攀古樓彝器款識』的圖，自留四十三器付刻，中有〈孟鼎〉、〈蘇衛妃鼎〉、〈興鼎〉、〈白矩敦〉、〈貝十朋子父乙觶〉五器爲『攀古樓』書中所無。除〈魚父癸壺〉花紋略異，〈召中鬲〉口內無銘文之外，其餘各圖與『攀古』均相同。」，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17쪽.

그리되 해설은 적게 하는 것 역시 서툰 것을 감추는 도리이다.²⁹⁾

이처럼 당시 학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을 인용하여 진솔한 書評을 하였으며 단지 著書의 내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지녀야 하는 학문적 태도까지 언급한 것은 당시 書評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이다. 그래서 서평에서는 이 책이 비록 圖象은 정교하나 해석은 적은 “圖工說少”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역시 일부 오류는 피할 수 없었다는 예리한 의견을 첨가하였다.³⁰⁾

2) 文字類

(1) 方濬益 『綴遺齋彝器款識考釋』

方濬益은 여기서 다른 사람의 金文學 저서에서 발견되는 상당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교정한 것이 두드러진 특색이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통했던 학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점을 書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方濬益은 해석이 상세하고 경전과 역사 그리고 지리, 관직제도, 인물 그리고 문자의 통가 현상에 익숙하여 상세히 검증하고 넓게 인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阮元の 『積古齋鐘鼎彝器款識』, 吳榮光的 『筠清館金文』, 吳式芬의 『攔古綠金文』 등의 오류를 교정하였다.³¹⁾

하지만 서평에는 이처럼 학술적 가치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류와 단점 그리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언급하였다.

29) 「吾輩所見吉金, 將來匯成一書, 必得詳審精選, 不爲識者所笑. 不見原器不刻, 圖工而說少, 亦藏拙之道也.」,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17쪽.

30) 「此書可以說達到了“圖工說少”的目的, 但也不能無小小的錯誤.」,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18쪽.

31) 「方氏考釋翔實, 熟於經史, 於地理, 官制, 人物和文字通假尤能詳徵博引, 並校正『積古』, 『筠清』, 『攔古』等書之失.」,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文集』, 138쪽.

그 중 도형문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억지스러운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杞伯敏父登〉의 壺를 登으로 풀이하거나 〈鬯王鬲〉에서 呂를 鬯으로 풀이한 것은 모두 오류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이와 같이 여겼으니 모든 것을 方濬益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³²⁾

또한 그의 청동기 시대 구분인 斷代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는 상대와 주대의 청동기를 하나로 병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潘祖蔭에게는 “송대 이래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궁벽함을 바로잡았다”라는 찬사를 얻었다. 시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상대와 주대의 기물은 대다수 분명히 나눌 수 있다.³³⁾

결국 최선의 서평은 금문학 저서가 가지고 있는 功過를 가감 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2) 吳大澂 『憲齋集古錄』

본 저서는 潘祖蔭, 王懿榮, 陳介祺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청동기 銘文의 탁본을 모아서 완성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吳大澂은 여러 관직을 거치며 지방을 다녔는데 그 때마다 항상 청동기에 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³⁴⁾ 서평에 서는 이러한 그의 성실한 학문적 태도를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그가 저술한 『集古錄』 중의 〈毛公鼎〉과 〈孟鼎〉 두 청동기의 해석은 팔월과 구월 사이 대단히 바쁜 시간 속에서 때로는 반장씩의 종이만 적으면서 열흘의 시간을 들여서야 비로소 이어서 다 적을 수 있었다.³⁵⁾

32) 「其中釋圖形文字，多穿鑿之說。又如〈杞伯敏父登〉釋壺爲登，〈鬯王鬲〉釋呂爲鬯，均誤。前人固多如此，不能盡責之方氏了。」，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9쪽. 이외에도 일부 위조 청동기가 수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33) 「他想合併商、周爲一類，得到潘祖蔭的贊同，謂“可正宋以來穿鑿傳會之陋”。斷限確是一件難事，但商、周器是大多數可以分得清楚的。」，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9쪽.

34) 「沿途有暇，輒書鐘鼎拓本釋文和考釋。」(여정 중에 겨를이 있으면 항상 청동기의 탁본을 그리며 명문을 해석하고 내용을 고석하였다.)，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5쪽.

이처럼 서평에서는 학술적 내용 이외에도 진솔한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는 저자 개인의 傳記적 특성 또한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서평 중 容庚 자신의 견해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인용한 내용을 함께 적기도 했다. 예를 들어 鮑鼎의 『憲齋集古錄校勘記』는 『憲齋集古錄』을 대상으로 내용의 오류를 수정한 저서이다. 서평에서는 鮑鼎의 跋文을 인용하여 『憲齋集古錄』의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³⁶⁾ 즉 타인의 跋文 등의 문장을 인용하여 吳大澂의 또 다른 저서인 『說文古籀補』로 『憲齋集古錄』의 未收錄 청동기의 양상을 자신의 서평에서 일체감 있게 소개하였다. 『憲齋集古錄』의 체례는 歐陽修的 『集古錄』을 모방했으며 商周 기물 천사십팔 점, 秦代 기물 십구 점, 漢代 기물 칠십육 점, 晉代 기물 한 점 등 총 천백사십사 점의 기물을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容庚은 그의 서평에서 정확한 수록 수량을 다시 계산하여 천이십육 점으로 제시하였다.³⁷⁾ 이처럼 그의 서평은 단순히 해당 저서의 우열을 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량을 점검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등 연구 결과물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한편 서평 중 본 저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대단히 높다.

오씨가 이 책에서 편집한 문자는 모두 탁본에 의한 것으로 위조된 것을 없애고 참된 것만을 남겼으며 신중하게 손으로 모사했으니 字書 중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저작이다. 비록 지금 살펴보면 사이에 잘못 해석된 문자가 있어 수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근세 사람들이 다시 계속 보충해도 아직까지 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³⁸⁾

- 35) 「他寫『集古錄』中〈毛公鼎〉、〈孟鼎〉兩器釋文，是八、九月間很忙的時間裏，有時祇能寫半頁，化了十天工夫纔陸續寫完。」，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5쪽.
- 36) 「以『說文古籀補』校之，失收者二百餘器。如〈福無疆鐘〉等載於『憲齋藏器目』，且未列入。」(『說文古籀補』로 이것을 교감하면 수록되지 못한 것이 이백여 점이 달해 〈福無疆鐘〉 등은 『憲齋藏器目』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아직 편입되지 못했다.)，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6쪽.
- 37) 「但有蓋的器分列爲二，也有重出和漏目的。我細爲覆算，重出了兩器，目錄漏列的六器，實得商周九百二十七器，秦十九器，漢七十九器，晉一器，共一千零二十六器。」(뚜껑이 있는 기물을 둘로 나누었으며 중복해서 나온 것과 목록에서 빠진 것 또한 있다. 내가 상세히 다시 계산하니 두 점의 기물이 중복해서 나왔고 목록에서 빠뜨린 것이 여섯 점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상대와 주대 기물 구백이십칠 점, 진대 십구 점, 한대 칠십구 점, 진대 한 점 등 총 천이십육 점이 수록되었다.)，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5쪽.

그러나 여기서 『憲齋集古錄』을 평가하며 “字書空前的著作”이라고 한 바와 같이 이것을 字書類 서적이라 여겼으나 실제로 본 저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銘文 위주로 수록한 文字類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3) 劉心源 『古文審』과 『奇觚室吉金文述』

『古文審』에는 모두 팔십이 점의 器物이 수록되어 있다. 容庚의 서평에서는 체례 및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명문은 원래의 행과 항목을 따르지 않고 대개 薛氏의 『款識』 이외에 『西清古鑒』, 『積古齋』, 『筠清館』 네 권에서 재료를 취하여 탁본을 교정했으나 모사한 것이 대단히 정확하지는 않다. 이상의 네 권의 저서에 대해 모두 교정을 하여 〈生尊〉의 鬱자, 〈縣妃彝〉의 縣자, 〈靜敦〉의 沓자 등은 창의적인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부회한 해석 역시 대단히 쉽게 발견된다.³⁹⁾

이처럼 『古文審』은 송대 薛尚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과 청대의 『西清古鑒』, 阮元的 『積古齋鐘鼎彝器款識』, 吳榮光的 『筠清館金文』에서 자료를 취하여 완성됐으나 그의 명문 해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감 없이 적고 있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신랄한 평가 의견은 쉽게 발견된다.

문자의 사례와 문장의 사례에 대해 아직 깊은 인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명문의 자형과 문장의 뜻을 함께 바로잡아 근거 없는 말을 없애고 이치에 맞지 않는 병폐를 끊는다”는 (자서의 말은)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던가!⁴⁰⁾

38) 「吳氏此書所編的字，皆據拓本，去偽存真，慎重摹寫，爲字書空前的著作。雖現在看來，間有誤釋的字，尙待修正。但近人一再續補，尙未能跳出他的範圍。」，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7쪽.

39) 「銘文不依原來行款，大抵取材於薛氏『款識』、『西清古鑒』、『積古齋』、『筠清館』四書，以校拓本，所寫不很正確。對於四書均有校正。如〈生尊〉的鬱字，〈縣妃彝〉的縣字，〈靜敦〉的沓字，可稱創獲。但牽強附會的解釋，則俯拾即是。」，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39쪽.

40) 「對於字例、文例尙不甚認識，乃想“篆形、文義，兩者兼定，去無據之言，絕附會之病”(自敘語)，豈非難事!」，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0쪽.

이처럼 심지어는 劉心源 본인의 序文 내용을 인용하여 비평적인 평가 의견을 적었다.

다음으로 『奇觚室吉金文述』에 대한 劉心源의 기록에 따르면 본 저서에는 이천 백십육 점의 器物이 수록되었다고 적고 있으나 容庚은 서평에서 모두 이천백팔십 삼 점의 기물이 수록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의 평가에 의하면 명문의 「해석 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단히 좋은 것과 대단히 좋지 못한 것」⁴¹⁾이 모두 발견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奇觚室吉金文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위 감별 방면에 너무나 주의를 하지 않았다」⁴²⁾는 점이다. 이에 대해 容庚은 대단히 신랄한 비평을 하였다.⁴³⁾ 이러한 비관적인 평가 태도는 앞서 살펴본 劉心源의 『古文審』과 유사하다. 정리하면 이처럼 容庚은 모든 서평에 있어서 반드시 호의적인 견해에 보다 많은 편쪽을 할애에서 적은 것은 아니다. 『古文審』과 『奇觚室吉金文述』과 같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단점에 대해 보다 많은 내용을 적은 경우도 발견된다. 즉 서평의 대상 저서를 선정할 때 내용이 우수한 것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비판하는 자세 또한 견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 시각으로 著書를 평가하는 것은 서평이 지녀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5. 結論

이상으로 宋代와 清代의 金文學 저서에 대한 書評의 내용과 그 實例를 살펴보았다. 역대 중국의 각종 金文學 관련 저서들은 眞僞의 판별, 銘文의 해석, 板本의 차이 등 각종 요인들로 인해 각각의 우열이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金文學 저서를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41) 「至於考釋方面，頗費心力，有很好的也有很不好的。」，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0쪽.

42) 「於鑒別眞僞方面，太不注意了。」，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0쪽.

43) 「劉氏此書穿鑿附會，誇耀己見，廢話太多，是無可諱言的。」(류씨는 이 책에서 억지로 이론을 끌어와 자신의 견해를 뽐내고 필요 없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니 꺼려서 말하지 못할 것이 없다.)，容庚，「清代吉金書籍述評」，『容庚文集』，141쪽.

다. 이러한 점에서 容庚의 「宋代吉金書籍述評」과 「清代吉金書籍述評」은 金文學 발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시기인 宋代와 清代에 간행된 주요 金文 著書를 총정리하여 평가 한 것으로 그의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書評은 향후 金文 연구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이러한 書評의 영향과 결과로 근대에 이르러 容庚의 『商周彝器通考』와 같은 종합적인 성격의 金文學 通考類 서적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金文學 서평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한 평가의 목적 이외에 考古學 분야와 유사한 器物의 形制나 청동기의 수량과 같은 목록 정리 등의 객관적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학술 내용 이외에도 개인적 학문 태도와 治學 방법이 드러나는 金文學 저서 저자의 傳記 기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金文學 저서에 평가자 개인의 학술적 의견을 더하거나 혹은 오류를 수정하였고 아울러 당시 학자들 사이의 학문 교류 성격의 書信 내용을 소개하여 학술적 가치를 제고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정확하고 절절한 서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자의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시각과 학술적 안목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宋代吉金書籍述評」과 「清代吉金書籍述評」은 향후 金文學 저서 서평의 일정한 표준과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동기 연구 분야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書評을 金文學의 주요한 범주로 당연히 인정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劉心源, 『古文審』, 臺北: 中央研究院傅斯年圖書館藏本.
 吳大澂, 『恆軒所見所藏吉金錄』, 臺北: 藝文印書館, 1971.
 劉心源, 『奇觚室吉金文述』, 臺北: 藝文印書館, 1971.
 王國維, 『國朝金文著錄表』, 臺北: 文海出版社, 1974.
 容媛輯·容庚校, 『金石書錄目』, 臺北: 大通書局, 1974.
 吳大澂, 『窻齋集古錄』,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76.
 方濬益, 『綴遺齋彝器款識考釋』,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76.

- 松丸道雄,『新編金石學錄』,東京:汲古書院,1976.
葉國良,『宋代金石學研究』,臺北: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1982.
楊樹達,『積微居小學述林』,臺北:中華書局,1983.
容庚,『商周彝器通考』,臺北:文史哲出版社,1985.
『清代傳記叢刊』,臺北:明文書局,1985.
王國維,『宋代金文著錄表』,臺北:廣文書局,1986.
馬承源,『中國青銅器』,臺北:南天書局,1991.
王國維,『觀堂集林』,北京:中華書局,1994.
潘祖蔭,『攀古樓彝器款識』,『續修四庫全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第903冊,1995.
曾憲通編選,『容庚選集』,天津:天津人民出版社,1995.
支偉成,『清代樸學大師列傳』,長沙:岳麓書社,1998.
馮爾康,『清代人物傳記史料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0.
曾憲通編,『容庚文集』,廣州:中山大學出版社,2004.
容庚,「評『猷氏集古錄』第二集」,『燕京學報』第八期,1930.

<Abstract>

Study of Book Review on Ancient Chinese Bronze Books

Oh, Jae-jo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cademic values and meanings of the book reviews of books that studied the Bronze Age of Song and Qing Dynasty. Although some records are found in one of the Bronze Age studies in Han Dynasty, full-scale research has begun in the Song Dynasty, and after that, much research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Qing Dynasty.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excellent Bronze Study Book by a large number of researchers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it has made meaningful achievements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Bronze Age related books and its review. The collection and arrangement of related data in the study of bronze is the first step prior to full-scale research. Therefore, the collection of accurate data is the

most important clue to the success of the study. Many of the books of the Bronze Age researchers who collected and compiled the Bronze and the Letter were the most important research data of the Bronze Age. Therefore, evaluating and analyzing such a book has important academic value. The academic content contained in the book reviews suggests a high level of insight and direction toward the Bronze Study Book. Therefore, academic value of book reviews can be recognized in the field of bronze research.

Key Words: bronze study, bronze, book review, bronze image, bronze letter

이 논문은 2017년 4월 10일에 접수되어 2017년 5월 1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